

# 禪師 말씀 石에 새기며 비우고 또 비우고...

## 최두헌 전각전 경주 예술의 전당서 9월 13일까지

서예를 배웠던 청년은 대학시절 인사동에서 만난 전각을 보며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글씨를 쓰는 가운데에서도 전각에 매진했고 불교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문학을 파고들었다. 또한 수석사 방장 설정 스님을 만나 참선화두로 마음공부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청년의 이런 삶의 흔적은 전각과 글씨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최두헌 학예사가 첫 전각 전시를 연다. 경주시의 후원으로 9월 13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 지하 1층 소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25점의 전각과 서예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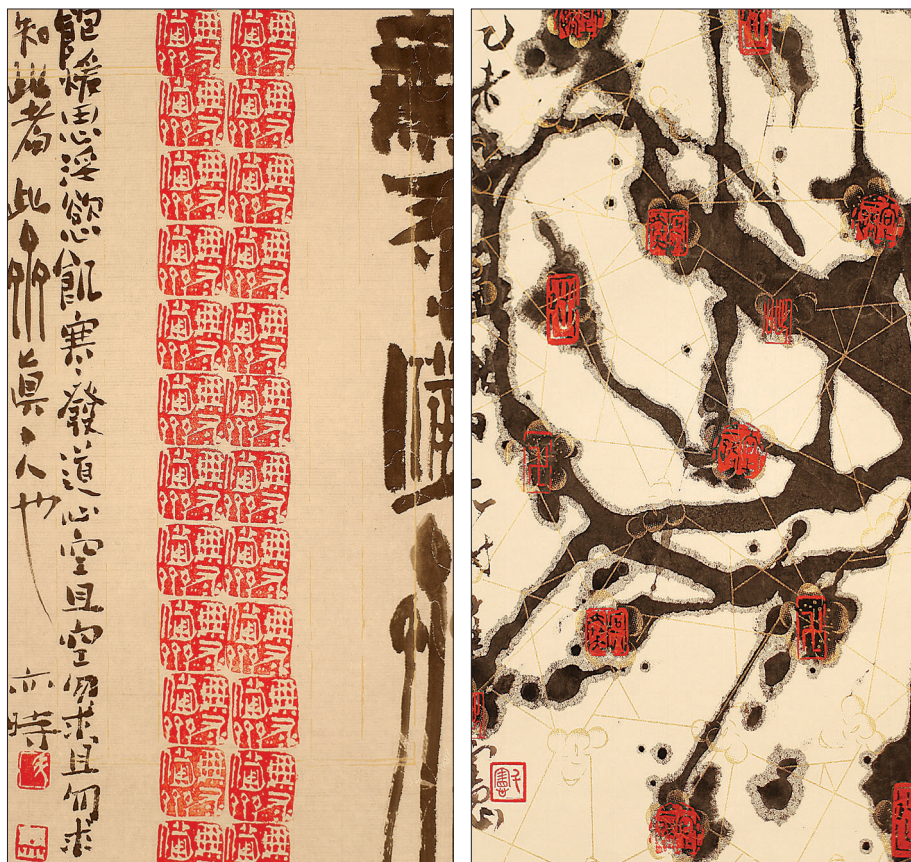
최두헌 작가는 “선승들의 진영과 법어를 돌에 새기고, 벽암록 구(句), 선승들의 시(詩), 도가의 무위(無爲) 등을 주제로 도장, 인장, 낙관 등을 작품화 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각이라는 예술의 무한 가능성을 보여주자고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작가는 전각예술은 오직 인면(印面)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그 안에서 정신적 응집을 돌출해내야 한다고 말한다. “돌 위에 선사

들의 말씀이나 조형적 예술미를 갈질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온 우주를 한 치의 방촌(方寸)안에 모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희열과 기대감이 먹물의 번짐만큼이나 짜릿하죠. 지금 저의 전각은 방촌 안에서의 문자유희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색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 서예와 전각의 결합으로 다양한 작품 세계 모색

매화나무를 연상시키는 ‘세계일화’(無求備齋)는 낙관과 먹의 번짐을 조화롭게 배치시켜 눈길을 끈다. 낙관을 찍어 그 위에 먹물을 흘리니 나뭇가지가 형성되고 이는 흡사 통도사의 홍매화를 보는 듯하다. “의도했던 바는 아니고 우연의 효과로 탄생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붉은 낙관을 찍고 그 사이로 먹을 흘리니 이는 매화나무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연가적 세계관을 말하죠. 그래서 그 제목을 세계일화라고 했습니다.”



최두헌 작가가 9월 13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서 개인전을 연다. 사진 왼쪽은 ‘무구비제’, 오른쪽은 ‘세계일화’

갖추지 않은 집을 의미하는 ‘무구비제’(無求備齋)는 그의 은사인 동국대 한문학과 김종진 교수가 작가에게 지어준 당호(堂號)를 작품으로 옮겼다. 이 당호는 ‘배우고 또 배우고, 구하지 말고 또 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선승 진영과 법어 등 25점 전시 벽암록 작품으로 승화 출판계획도

“세상은 모든 걸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비우고 비워서 갖추지 않은 집을 지으라는 뜻이죠. 스승님께서 진정한 세상의 주인은 세상을 품어야지 일물(一物)을 갖추려고 애들바등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처음 당호를 받았을 때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종 대종사의 진영과 함께 새겨진 오도송도 인상적이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 앞에 바로 주인공의 집이 보

이네/ 하하! 이제야 만나 의욕이 없으니/ 우담바라 빛이 온 세상에 흐르네’라는 의미의 이 오도송은 의미 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지금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봉 스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스님의 오도송을 작품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오도송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벽력같은 할(喝)입니다. 과연 지금 거울 앞에 앉아 내 자신과 이야기 나눌 사람이 몇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박한 세상에 이 오도송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이죠.”

작가는 앞으로 벽암록 100개의 화두를 서예로 옮긴 작품 전시는 물론 이를 책으로도 펴낼 계획이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스님들의 작품도 전각으로 새겨나갈 예정이다. 한편, 최두헌 작가는 동국대 한문학과 졸업,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부산대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를 수료했다. 한국전각학회 회원, 부산전각학회 회원,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 전각반 강사, 울산대 미술대 동양화과 강사로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로 활동하고 있다. 1588-492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불교음악원 지도자 과정 개설 수강생 모집

### 불교음악 및 찬불가 지도... 개강은 9월 2일

홍윤식 교수, 국악인 안숙선·김성녀 등 강사로



홍윤식 교수



국악인 안숙선



국악인 김성녀

조계종단 최초로 설립된 불교음악원이 불교음악 지도자 과정과 찬불가 지도자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9월 2일로 수업은 불교음악원 및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등에서 진행된다.

불교음악 지도자과정은 총 4학기 과정으로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8시 수업이며 모집인원은 10명으로 수강료는 학기당 100만원이다.

수업은 △불교와 음악(특강) △기초이론 및 선율작법 △선율작곡법 및 합창 편곡법 △국악기의 이해 및 선율작곡법 △대중음악 작곡법 △합창 지휘법 △관현악 지휘법 △멀티미디어음악 △마스터 클래스로

구성된다. 강사진으로는 홍윤식(동국대 명예교수) 김동환(중앙대 명예교수) 채운(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허광훈(서울예중 실용음악예술학부 교수) 김희경(조계종 불교음악원 음악감독) 등이 참여한다.

찬불가 교육과정은 총 2학기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시이며 선착순 100명 모집으로 수강료는 학기당 50만원이다. 교육과정은 △불교와 음악(특강) △불교음악의 기초이론 및 실습 △전통법패와 작법 △생활 찬불가 교육 △회합곡 △댄스 스프로로 구성된다.

강사진으로는 안숙선(국립국악원 민속

악단 예술감독) 김성녀(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영(사 아리랑보존회 이사장) 박상진(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박애리(국악인) 강주현(연꽃향기 찬불가요교실 대표) 한정일(천태종 관문사 지휘자) 정을 스님(성악가) 남상일(국악인) 인목 스님(조계종 의례위원회 위원장) 등이 나선다.

각 학기 기말작품 발표회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불교음악 지도자과정은 조계종 총무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찬불가 교육과정은 불교음악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접수기간은 8월 26일까지이며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cobm007@gmail.com)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2월11일 입법예고를 통해 설립이 공식화 된 불교음악원은 불교음악의 진흥을 꾀하고 불교음악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6월 7일 봉은사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과정은 불교음악 최고위과정과 지도자과정, 찬불가 교육과정과 최고위과정 등 총 4개의 교육과정으로 나뉘며 찬불가 외 작곡, 지휘 등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여 일반재가신도들과 합창단을 중심으로 불교포교에 기여하고자 한다. 3218-4866

정혜숙 기자

## 거장들이 발견한 평범한 일상의 역사 렌즈에

### 매그넘 사진의 비밀전 '브릴리언트 코리아' 봉은사 기림사 선암사 등 사찰 사진도 주목



매그넘은 한국의 역사를 카메라에 포착해 전시를 연다. 2013년 봉은사 개산대제 정대불사 장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시 '매그넘 사진의 비밀展-브릴리언트 코리아(Brilliant Korea)'가 10월 3일까지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술동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9명의 매그넘 포토스(이하, 매그넘)작가는 '한국'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전

통, 분단의 역사, 그리고 오늘을 이끈 열정과 영웅들의 모습을 찬란한 찰나의 시각에서 포착해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 봉은사, 인왕산 선바위, 경주 기림사, 순천 선암사 등을 주제로 한 사진들도 선보여 주목된다.

봉은사 개산대제 정대불사 등 사찰 문화행사는 물론, 경주 기림사의 스님이 예불을 드리는 모습과 순천 선암사에 놓인 고무신 한 켤레 등은 한국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상에 대한 진정성을 추구하는 이들 작가는 스스로의 철학에 충실하게 지난 2년간 수시로 한국을 오가며 작업했다. 전시장에서는 결과물인 사진은 물론 그 과정을 담은 영상물도 함께 볼 수 있어 관객과의 소통 및 공감을 모색한다. 또한 매그넘 작가들은 어떤 순간을 기다려, 언제 셔터를 눌러 만족스런 사진을 얻어내는 지 등 사진 비결(Secret)과 사진철학 등도 직접 공개해 사진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1947년 로버트 카파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기치로 결성한 사진작가 그룹 매그넘은 전쟁과 평화, 인권과 환경 등 인류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를 다양하게 아우르며 역사의 결정적 장면에서 생생한 증언자로 활약해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 놓쳐버린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래서 매그넘이 주목하고 사진으로 기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대상은 '눈 여겨 봐야 할 존재'가 된다. 070-4492-0025 정혜숙 기자

## 實戰四柱 강좌 안내

### 運命을 개척하는 實戰四柱

####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자!”

송암 김서경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實戰四柱 종합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법사님 등 누구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파편과 부귀영화는 나 자신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습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시고 무량공덕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 제목 : 實戰四柱 강좌
- 개강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 강의일시 : 매주 월 ~ 화, 목 ~ 금 (10-12시, 15시-17시, 19시-21시) 하루 2시간 강의
- 강의과정 : 1년 과정 + 육효, 성명학 4개월
- 강의장소 : 명리학연구원 강의실
- 강의교재 : 實戰四柱 (교재비 무료)
- 수 강 료 : 월 20만원

### 實戰四柱 책 판매 안내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별도 판매합니다)

이 실전사주책은 1,030페이지로 사주팔자가 구백육십이며 오행과 대운과 세운, 칠성, 성격, 팔자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책만 배우면 어떠한 사주라도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1년만 배우면 타인을 감정을 줄 수 있으며 육효도 필히 배워야 합니다. 사주와 대운은 큰 틀이며 매월의 운세와 승진, 합격, 재물, 매매, 송사, 문서, 생과 사, 택일, 일진, 모든 길흉사는 육효로 감정합니다. 육효는 4개월만 배우면 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 85,000원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명리학(命理學) 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1 농협건물 4층 401호  
**전화 010-3341-4867**  
**원장 송암 김서경**

국내 유일 14인치 마이프랜드 박스팬 선풍기!

**마이프랜드 정품 32,000원**

**무료배송, 정품확인 완료 73,000원**

**강력한 터보팬동작, 무료배송 84,000원**

선풍기 무료배송 당일배송 및 안전배송

마이프랜드 정품인증 완료

박스팬 선풍기	32,000원
스탠드 선풍기(리모컨포함)	73,000원
터보팬 선풍기	84,000원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문의전화 02)879-2007